이소(가제)

#1 - 교실 **-** 낮

텅 빈 교실.
책상들이 가지런히 줄지어 놓여 있다.

은찬(19, 남)은 창가 자리에 앉아 책상에 얼굴을 묻고, 이어폰을 낀 채 멍하니 밖을 바라보고 있다.

잠시, 교실 안은 고요하다.

그때 윤서(19, 여)가 들어온다.
백팩 끈에 겨울 점퍼를 걸친 채, 자신 있게 교실 안으로 들어온 윤서는 은찬이 음악 때문에 자신을 눈치채지 못한 것을 보고 잠시 멈춰 선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낸다.
은찬을 찍으려던 윤서는 화면 속 은찬을 잠시 바라보기만 한다.

결국 사진은 찍지 않는다.

휴대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는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은찬의 뒤로 살금살금 다가간다.
양손으로 은찬의 등을 퍽 치자-

은찬이 화들짝 놀라 몸을 일으킨다.
하지만 뒤를 돌아본 순간, 피식 웃는다.

윤서
미안, 오래 기다렸지?
이제 나가자.

윤서는 은찬의 대답도 듣지 않고 몸을 돌려 문 쪽으로 향한다.

은찬은 휴대폰이랑 겉옷, 가방을 대충 품에 끌어안고 자리에서 일어난다.

은찬
(텅 빈 교실을 보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없고?

윤서
(돌아보지 않은 채)
있겠냐고.

윤서는 먼저 떠난다.

은찬은 서랍장을 바라본다.

이제는 비어 있는 두 자리.
이름표가 꽂혀 있던 자리를 손끝으로 한번 쓸어보려다가 멈춘다.

그리고 윤서의 뒤를 따라간다.

#2 - 학교 앞 **-** 낮

윤서는 한쪽에 서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조금 짜증 난 표정.

은찬은 주변을 한번 둘러본 뒤 다시 학교 건물을 바라본다.

잠시.

윤서는 휴대폰을 내리고 가볍게 기지개를 켠다.
몸은 반쯤만 은찬 쪽으로 돌리고.

윤서
이제서야 좀 숨이 쉬어지네.

은찬
응?

윤서
아냐.
(잠시)
오늘 좀 돌아서 갈래?

은찬이 대답하기도 전에 윤서는 그의 소매를 잡아끌고 걸어간다.

#3 - 길거리 **-** 낮

천천히 길을 걷는 윤서와 은찬.
윤서는 멍하니 주변을 둘러보고, 은찬은 바닥만 내려다보며 걷는다.

은찬
다현이 벌써 서울 올라갔다던데.
연세대 개강 준비한다고.

윤서
(조금 짜증 난 듯)
진짜?
우린 개강 일주일 전부터 기숙사 들어갈 수 있는데.

은찬
자취하게 되는 거 걱정도 안 되는가 봐?

윤서
걱정?
완전 기대되는걸.
마음 같아서는 내일 당장 여길 떠난다.

둘은 골목을 돌아 작은 분식 포장마차 앞에 멈춰 선다.

윤서
(은찬을 힐끗 보며)
늘 먹던 걸로?

은찬이 고개를 끄덕인다.

윤서
(포장마차 주인에게)
오뎅 하나랑 떡볶이 하나 주세요.

잠시 후.

둘은 음식을 받아 근처 벤치에 앉는다.

은찬
처음 먹어본 지도 거의 10년 됐는데
맛이 그대로인 게 신기하다.

윤서
중학교 때는 맵다고 떡볶이도 못 먹었으면서.

은찬은 휴대폰을 꺼낸다.

은찬
잠깐.
사진 하나 찍자.
(머쓱하게)
마지막이기도 하고.

둘은 무릎 위에 음식을 올려두고 사진을 찍는다.

윤서
마지막은 무슨.
넌 대학 가서도 올 수 있잖아.
집 가는 길에.

은찬
에이.
지하철 타고 여기까지 다시 오기에는.

둘은 셀카를 찍는다.

찍힌 사진 속.

은찬은 얼굴 반쪽을 떡볶이 용기로 가리고 있고,
윤서의 얼굴만 제대로 보인다.

음식을 먹으며 휴대폰 속 오래된 사진들을 넘겨본다.

조용히 웃고.
사진 속 기억들을 하나씩 짚어간다.

그러다 한 사진에서 멈춘다.
버려진 아파트 단지.

아무 말 없이.

윤서가 은찬을 바라본다.
은찬도 그녀를 바라본다.

잠시.

둘은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난다.

#4 - 버려진 아파트 단지**(**외부**) -** 오후

윤서와 은찬은 낡은 계단을 올라 잠시 멈춰 선다.
눈앞에 잡초로 뒤덮인 버려진 아파트 단지가 펼쳐진다.
둘은 여러 식물들 사이로 난 좁은 길을 따라 안으로 들어간다.

윤서
여기 진짜 빨리 밀어버려야 돼.
초등학교 때부터 이 상태 아니냐?

은찬
난 그래서 좋은데.
(주변을 둘러보며)
이 동네에서 마지막으로 안 변한 곳 같아서.

둘은 안쪽으로 들어가 벽에 붙어 있는 낡은 게시판 앞에 멈춘다.
영수증과 종이 조각들이 수없이 겹쳐 붙어 있다.
윤서는 포장마차에서 받은 영수증을 하나 떼어 게시판에 붙인다.
은찬은 잠시 그것을 바라보다가 휴대폰을 꺼내 게시판을 사진으로 남긴다.

#5 - 버려진 아파트**(**내부**) -** 오후

버려진 방 안.
생각보다 사람의 흔적이 남아 있다.

낡은 벤치.
줄조명.
구석에 놓인 작은 스피커.

윤서와 은찬은 익숙한 듯 공간 안을 움직인다.

불을 켜고,
벤치 위 먼지를 털고,
흐트러진 것들을 다시 제자리에 둔다.
말없이 이어지는 동작들.

닫히는 커튼. 켜지는 조명. 닫히는 창문. 흘러나오는 음악.

각자의 역할을 마친 둘은 동시에 벤치에 털썩 앉는다.
길게 숨을 내쉰다.
금세 방 안에 온기가 돈다.

정적.

윤서
너 오늘 좀 이상하다.

은찬
뭐가?

윤서
가기 전에 뭐라도 하나 하자.

은찬
뭔데?

윤서
나 너 10년 가까이 봤는데,
(은찬을 바라보며)
진짜로 소리 지르는 건 한 번도 못 봤어.

은찬
갑자기?

윤서
막 진짜 미친 사람처럼.
“아, 하지 마!” 이런 거 말고.

은찬
별로 안 내키는데.

윤서
오늘 뭐 쌓인 거 많은 것 같은데.

윤서는 은찬의 팔을 붙잡고 창가 쪽으로 끌고 간다.

윤서
그냥 질러봐.
싫었던 거나.
못 했던 말 같은 거.
뭐든.

그리고 예고도 없이-

윤서
아아아아아아악-!!!

텅 빈 건물 앞으로 윤서의 목소리가 길게 울린다.
윤서는 은찬을 바라보며 웃는다.

윤서
이렇게.

은찬은 한참 윤서를 바라본다.

은찬
너 뭐 때문에 질렀는데?

윤서는 잠시 바깥을 바라본다.

윤서
모르겠다. 그냥.

윤서는 다시 바깥을 바라본다.

윤서
자.
하나, 둘, 셋.

잠시.

윤서와 은찬
아아아아아아아아아-!!!

목소리가 텅 빈 아파트 단지 안으로 퍼져나간다.
윤서가 먼저 멈췄는데도 은찬은 한참 더 소리를 지른다.

숨을 고른 은찬의 눈가가 조금 젖어 있다.

둘은 서로를 바라보다 웃음을 터뜨린다.

은찬
이번엔 내 차례.

윤서
(단호하게)
싫어.

은찬
너 춤추는 거 싫어하잖아.

윤서
절대 안 해.

은찬
오늘 정도는 해도 되잖아.

윤서는 아무 말 없이 은찬을 노려본다.

은찬
그럼...

기다리지 못한 윤서가 은찬의 폰을 낚아챈다.

은찬
뭐 하냐?

윤서는 연락처를 넘겨보다가 멈춘다.

윤서
어?
(잠시)
너 아직도 얘 번호 있어?

윤서가 화면을 돌린다.

'진우'

은찬
있는 줄도 몰랐네.

윤서
전화해볼래?

은찬
해서 뭐라 하게.

윤서
몰라.
아무 말이나.

은찬은 잠시 화면을 바라본다.
윤서는 폰을 돌려준다.

잠시.

은찬이 직접 통화 버튼을 누른다.

신호음.
한 번.
두 번.

은찬은 결국 전화를 끊는다.

잠깐의 정적.

그리고 둘은 결국 다시 웃는다.

#6 - 골목길 **-** 밤

윤서와 은찬은 좁은 골목길을 천천히 걷는다.
한동안 말이 없다.

윤서는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확인한다.

아무 연락도 없다.

그럼에도 무언가 읽는 척 화면을 내려다본다.

윤서
이제 가봐야겠다.

은찬
응.
늦겠다.

둘은 걸음을 멈춘다.
잠깐 서로를 바라본다.

아무 말도 없다.

그리고-

은찬이 갑자기 윤서를 향해 빠르게 두 걸음 내딛는다.
거의 부딪히듯 윤서를 끌어안는다.

놓치기 싫다는 듯.

윤서도 천천히 팔을 올려 은찬을 안는다.
은찬은 얼굴을 반쯤 윤서의 점퍼에 묻고 그녀를 더 세게 끌어안는다.

둘은 한동안 그대로 서 있다.

멀리 차 소리가 지나가고,
불빛이 스쳐 지나가고,
바람이 분다.

하지만 둘만은 그 자리에 멈춰 있다.

잠시 후.

윤서가 천천히 품에서 빠져나온다.

윤서
...또 보자.

은찬은 대답하지 않는다.

윤서와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그저 윤서의 신발 끝만 바라보고 있다.

윤서는 작게 웃어 보인다.
그리고 몸을 돌린다.

그제서야
은찬이 천천히 고개를 든다.

멀어져 가는 윤서의 뒷모습을 바라본다.
점점 어둠 속으로 사라져간다.

윤서는 계속 걸어간다.
멀리, 윤서의 뒤로 서 있는 은찬의 실루엣도 조금씩 흐려진다.

서로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CUT TO BLACK.